

연중 제26주일

제 1 독서 : 에제18, 25-28  
제 2 독서 : 필립 2, 1-11  
복 음 : 마태21, 28-32

# 순정이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마태 21, 32).

## 강론

## 소리

###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나 춘 성 신부 / 순창천주교회

벌써 올해도 3/4이 지났습니다. 9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더 신앙인다운 생활을, 좀더 사제다운 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눈을 뜨면 기계적인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를 봉헌하고,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구태의연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군중신부라는 특수신분으로서 군대 공동체의 신자들과 사병들을 대상으로 생활하다 보니, 본당신부로 돌아와 시골본당을 맡자마자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천호 피정의 집’에서 실시된 교구 사제 연례 피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피정강론을 듣고 미사를 교구 사제 합동으로 봉헌하면서, 사이사이에 휴식과 묵상시간에 산책을 곁해서 성지를 돌아보다가 문득 이 자리에 묻혀 있는 순교 성인들과 많은 무명 순교자들이 왜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하고 순교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 술한 고문과 화유를,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을 받았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아무런 위협이나 위협도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연 103위 성인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를 신앙의 선조로 모시고 있는 사실을 자랑하며 남들에게 내세울만한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시다.

“성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 성인들 비롯한 한국의 모든 성인성녀 순교자들이여! 천상에서 당신들의 신앙의 후예인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천주께 빌어주소서. 아멘.”

### “풍년 유감”

들녘에 나서면 가는 곳마다 풍년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을 볼 때 ‘이제 굼주림은 면하게 됐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만 요즘엔 농사를 짓는 이나 다른 생업을 가진 이나 풍년을 별로 반가워 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10년째 풍년이 들었어도 농촌에는 시름뿐이고 정치를 책임진 이들까지 수매할 벼를 보관할 창고가 없다고 걱정이다. 어렸을 적 굼주림을 경험해본 세대에게는 모두가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지고 격세의 느낌마저 든다.

어쩌다가 풍년이 이처럼 거추장스럽게 되었으며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잘됐는데도 농민들에게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게 됐을까.

웬만큼 가난한 마을이 아니면 거의 집집마다 텔레비전과 전화, 냉장고가 있을 만큼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버린 지 오래고 남아 있는 노년층마저 농촌을 떠날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노년층도 도시로 나간 자녀들에게 논밭을 물려줄 생각보다 땅을 팔아치우고 도시로 나가 살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농민은 ‘죽어도 아이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일컬어 왔건만 대대로 흠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이처럼 농사를 혐오하게 되어 모두 농촌을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먹을 양식은 누가 마련해줄 것인가.

뿌리가 병들고 썩어지면 나무가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 지금은 나라의 근본인 농촌에 희망을 줄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진**

### 순정이 산책



# † 천주교회 안에서의 조상의 제사 문제 †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이날을 전후로 우리 한국은 민족 대이동의 시기를 맞는다. 5일의 연휴를 맞는 올해는 3천5백만의 인구가 각기 고향을 향해 이동하리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왜 고향을 찾는가? 여러 내부적 요인이 있으나 거의 모든 이의 표면적 이유는 '차례를 지내기 위해' -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은 변했어도 우리 민족들 가슴속에 있는 '제사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 박고 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더욱이 250만 천주교 신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10년 안에 영세한 새신자들이기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은 어떤 형태로든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이에 제사에 관한 교회의 태도를 소개한다.

때문이다. 이 정책 변화의 요인은 ① 신앙의 토착화에 대한 재인식 ② 단죄보다는 은총을 강조하는 신학사조의 대두 ③ 동양인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 증진 ④ 서양문화의 전래와 함께 동양인들의 미신적 요인 감소 ⑤ 종교 자유가 명시되고 각 국가들이 그들 예식들에 관해, 종교의식이 아닌 사회적 국민적 의식임을 천명 등이다. 그리하여 1939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2세는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자 존경 의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했고, 선조 공경 의식에 대해서도 '시체나 죽은 이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함이 가하고 타당한 일이다' 하는 상당한 관용조치를 발표하였다.

### 1.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 제기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 제기는 400여 년 전 중국교회로부터 시작된다. 비교적 진취적이고 동양의 풍속과 지혜를 포용했던 예수회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며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하던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간의 의견 대립 속에서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한 태도에 일관성을 잃는다. 16C 말엽 마태오 릿치 신부에 의해 시작된 예수회의 중국 선교 방침에 대해 도미니코 회원인 모탈레스 신부가 정식으로 교황청에 이의(異意)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한 이 논쟁은 근 100년을 걸쳐 계속되었다. 결국 1742년 7월 11일 교황 베네딕도 14세의 칙서 「EX QUO SINGULARI」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공자와 조상에 관한 제사'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 3. 한국 주교단의 결정

이 훈령에 의해 한국주교회의는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시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이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진설'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반면에 아직도 허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축과 함문(闔門) - 훈령이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여는 예식, 장례에 있어서의 고복(阜復) - 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 사자밥 -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것, 반함(飯含) - 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가비, 구슬 등을 넣는 예식 등이다. 그리고 위패에 신위(神位)라는 글자 없이 이름을 써서 모시는 경우는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2. 시대의 변천과 허용 조치

이러한 교회의 결정은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등 유교 문화권 사회의 선교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지식층 신자들의 대기 탈락은 물론 우리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킨 것이다. 우리 지역의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야고보)의 죽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 인하여 천주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 인륜을 저버린 짐승의 무리로 낙인 찍히고 사회·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윤리 질서와 사회체제에 대한 부정과 파괴를 자행하는 불은세력 내지 비국민(非國民)으로 인식되었다. 한창 선교의 불이 붙은 동양의 선교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수많은 신도들의 피를 뿌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후 200년이 지난 20C 전반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럴만한 많은 요인들이 발생했기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상 제사 문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저러한 조건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풍습의 대부분을 그대로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우리의 풍속이 '미신화'된 상태 그대로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를 막기 위해 그토록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아무리 제사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사가 미신적, 우상숭배적 제사가 안되기 위한 우리의 자각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 우리 신앙에 맞는 제사로 자리잡기 위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추석의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내야 신앙인다운 제사가 될런지 온 가족이 모여 숙의해봄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해 외 여 행  
(성지순례 · 신혼여행)  
**고려관광**  
이 종길(요한)  
☎ 87-9797  
(기린로 병우청 사거리)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눌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마카렐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중앙상가 꽃도매시장**  
축하바구니 · 조의바구니  
생화 신부부케 분재  
유 제 철(바오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251-9600

잡 관!

“모범적인 추석 차례 예식”

•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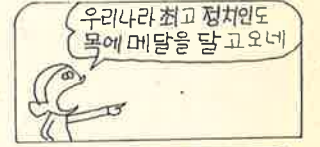
- ① 집안팍과 차례 지낼 방 대청소.
- ② 목욕제재하고 단정한 옷으로 입는다.
- ③ 고백성사로써 마음을 깨끗히 한다.
- ④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되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린다.
- ⑤ 차례상에 초(2개)와 꽃, 향을 준비.
- ⑥ 벽에 십자가 그 밑에 사진을 놓는다(사진 없으면 이름을 써 붙인다).
- ⑦ 차례상 앞에 돗자리나 깔개를 편다.

• 차례 예식(연도를 바칠 수도 있다.)

- ① 성호경
- ② 성가: 가톨릭 성가(50장, 59장, 423장) 중 하나 선택.
- ③ 독서: 성서구절 선택하여 봉독.  
(요한 14, 1-14. 루가 2, 41-52. 마태 5, 1-12)

- ④ 가장(家長)의 말씀: 위령문 봉헌.  
 ㄱ. 선조 소개-가훈, 가풍을 전해줌.  
 ㄴ. 가정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함.  
 ㄷ. 하느님의 말씀과 선조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과 일치를 다짐.
- ⑤ 큰절: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절을 드린다 (남녀 가리지 말고).
- ⑥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참조)를 바친다.
- ⑦ 신자들의 기도 바침: 참석자 모두(은혜 청원).
- ⑧ 성가: 가톨릭 성가(77장, 372장, 445장) 중 하나 선택.
- ⑨ 주의 기도: 다 함께 바친다.
- ⑩ 식사: 차례 음식을 나눈다.
- ⑪ 성호경

요심이 (895) 김병오



† 감사드립니다

지회 모친 손마리아 치상 때 수고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석우, 비우, 춘우, 성우 신부 울림

송학동 성전전립 기금 마련 사랑 나눔 큰 잔치  
**축 복 권**  
2천원으로 축복과 송송차들...  
축복상 1명: 송송차 (프라이드)  
1 등 1명: 피아노  
2 등 1명: 오디오 셋트  
3 등 1명: 냉장고  
기타 300여명 기념상품  
※추첨일: 1990. 11. 5(월) 오후 3시  
판매처: 각 본당 사무실

**동 창 회**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일시: 1990년 10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성심여자중·고등학교 내 동창회관  
※ 10일 3일간 성가총회를 추석명절 관계로 유해한 10월 9일로 연기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가비: 3,000원  
동창회장 박금규

교 구 소 식

- 1. 교구청 휴무: 10월1일~4일
  - 2. 추석 송개재 묘지 미사: 오전11시, 10시30분부터 합동연도가 있습니다.\* 현재 묘지 앞에 모셔 놓은 성모상은 금년 추석을 기해 모두 철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주교님배 교구사제 친선 테니스 및 바둑대회: 10월 1일 10시, 장소-덕진 호반코트.
  - 4.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10월4일(목) 10시~16시 덕진성당, 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 5. 성모의 기사회 모임: 10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6. 테클라 성소모임: 10월7일 오후2시 성바오로 서원 2층 (0652)252-3398.
  - 7. 살레시오여자수도회 성소모임: 10월7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 8. 성모성심수도회 성소모임: 10월7일 10시~16시 서울본원 (02)278-7491.
  - 9. 살레시오수도회 성소모임: 10월6일 오후5시~7일 오후2시, 광주수도원 (062)55-0332 회비-3,000원.
  - 10. 사람의 씨튼수녀회 성소모임: 10월7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 (0652)77-4212.
- ※ 축! 영명: 4일(아씨의 성프란치스코) 김기곤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T. V. 대화 단절의 주범—

가정 안에서 대화 단절의 주범은 텔레비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을 T. V. 앞에 모여 앉게 만들어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모처럼 명절 덕에 만나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겨운 대화와 웃음으로 가정다운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 (헬레나)  
☎ 6-6951  
동서관동로 신덕은행 앞

**성심木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건의자  
탁상·화분대·훈례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인나 (은순)  
전주 ☎ 77-1747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3-2496, 2-8653

개인 지도식 교육  
유지부하·클리어 및 속셈숫자지도  
**관영재속셈학원**  
장 재 식 (베드로)  
원 숙 영 (가레타나)  
우이동 우산APT 입구 백미역로2층  
☎ 76-1300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 남

※ 다음주(10월7일)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 본당미사-새벽5시30분 • 교회요지-전11시 • 강소-전9시30분(왕정리 강당) 각 가정마다 선영을 위해 미사 접수바람. 2. 주일학교 어린이 성지순례: 오늘 10시출발 장소-천호성지, 도시락 지참. 3. 침단련 L.M: • 희망이신 모후: 단장-박안나, 부단장-박마리아, 서기-나호노로디, 회계-김사라 • 겸손하신 모후: 단장-한가타리나, 부단장-베테레사, 서기-엄리타, 회계-김정혜앤리사벳 • 정직하신 모후: 단장-안소화베테레사, 부단장-박안나, 서기-이아데스, 회계-김다리아. 4. 반회장 추석 단합대회: 5일 전10시30분. 5. 모임: • 성심회 월례회-2일 어머니미사 후. • 성시간-4일 후7시30분 • 사목회 분과모임-5일 후8시. 6. 금주 청소: 인후12,13반. 차주 청소-인후14,15,16반. □ 지남주 봉헌금: 951,530원

## \* 목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 군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3일 새벽6시, 오전10시30분.  
 2. 회정단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사목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4. 올드레아: 2일 저녁미사 후. 5. 제대회: 4일 오전10:30.  
 6. 성체강복: 4일 저녁미사 후. 7.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5일 오전11:30분. 8. 초등부 가을 소풍: 7일. 9. 밀알회: 10월10일 오후6:30분. 10. 대건회: 10월14일 공식미사 후.  
 금주 전례: 해설-오경화 독서① 오영열 ② 고봉심  
 봉헌-오영열 씨 부부  
 추석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 장동주 ② 교회구  
 봉헌-장동주 씨 부부  
 차주 전례: 임은희 독서① 김수영 ② 소매덕  
 봉헌-김수영 씨 부부  
 □ 지남주 봉헌금: 461,670원 □ 교무금: 684,900원  
 □ 2차헌금: 274,73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 석

※ 10월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예비자 인도에 정성을 다합니다.  
 1. 제대회: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월례회: 6일 저녁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4.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경읽기: 이사야 41장~50장.  
 6. 추석합동미사: 3일(수) 오전10시30분 독서① 양주태 ② 김순이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7.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양대환 ② 구영준  
 봉헌-유순천, 박귀철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경재 독서① 박귀철 ② 장영미  
 봉헌-오철규, 하태중 씨 부부  
 8. 군인주일: 다음주 2차헌금.  
 □ 지남주 봉헌금: 217,8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 웅

※ 10월은 전교의 달!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 다음주일은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1. 회의: ① 사목회-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다음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 ③ 성심회-10월13일(토) 오후2시.  
 2. 알림: ① 추석대축일 미사시간-10월3일(수) 추석날 오전10시30분 ② 가정방문-10월10일(수)-16반, 10월17일(수)-17반~20반 ③ 레지오전단원교육-10월18일(목) 오전9시부터, 레지오단원은 전원참석 바람. 평신자도 뜻있는 분은 참석바람 (중식제공, 회비-1,000원, 꾸리아 추제).  
 □ 지남주 봉헌금: 534,650원 □ 교무금: 620,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 환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막달레나회·사리회·요셉회: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10월6일 토요일 오후2시30분.  
 4.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10월6일부터 오후3시(부모님께 힘조 바랍니다. 어린이 미사책과 교리서를 지참토록 해주십시오).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불 접수합니다.  
 6. 청소구역: 서안산동2가 동편.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 훈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 수

※ 성전보수헌금 비람.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올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재속 클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1시30분.  
 3. 구역봉사자 모임: 다음주 저녁7시30분.  
 4.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위한 헌금(2백만원-전동7반: 김봉배드르), 김향숙(테레사) 부부) 나머지 2백만원 헌금하십시오.  
 5. 추석 합동 미사예를: 10월2일까지 빠짐없이 바칩시다.  
 \* 금주보수비헌금액: 6,767,000원 \* 현재모금총액: 162,122,00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1,300,000원 \* 현재신입총액: 235,961,800원  
 □ 지남주 봉헌금: 1,353,43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

※ 축! 명명: 권마리테레사 수녀님, 축하식-공식미사 후. \* 육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0 접수: 2일까지. 접수-사무실, 본당미사-오전5시30분, 오시. \* 유아세례: 오늘 오후3시. \* 신청서와 대부모 선정서 사무실에 접수바람. 1. 자모회, 성심회: 10월(수)로 연기. 사목회: 6일(토) 저녁미사 후. 3. 구역장 월례회: 다음주 3미사 후. 4. 군인주일(7일): 장병들을 위한 2차헌금. 5. 성가 임원개편: 단장-차담순(루시아), 부단장-최정자(도미니카) 총부-이성자(에지나). \* 구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회를 수고하시겠습니까. 6. 금주 전례: 문치규, 김광택 목사-헌, 박병환 목사-안낙선 부부. 차주 전례: 문치규, 김광택 사-이정분, 지동호 봉헌-신규언 부부 \* 본당은 우리의 가  
 □ 지남주 봉헌금: 424,740원 □ 교무금: 884,000원  
 □ 수재의연금: 143,900원

##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3일(수) 오전10시30분에 있습니다.  
 2.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금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이창우 부부  
 차주 전례: 해설-한병갑 독서·봉헌-염상열 부부

##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태  
 사목회장 황 수

※ 오늘은 수재민을 위해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추석(3일) 합동 위령미사 안내: ① 06시 ② 11:00 죽은조상 부모·육친지를 위해 세대별로 미사를 봉헌합니다(접수: 사무실). 효자본당 제1회 친선 테니스대회: 오늘 오후1:30(교육대학) 3. 모임안내: ① 사목회 상임위원회-금 오후8시 ② 안나과 다음주 11시 미사후 ③ 까리파스회-금 오후3시 ④ 구역봉사 모임-10월(수) 10:30. 4. 새예비자 교리시간: ① 일-9: ② 화-10:30 ③ 수-화7:30 ④ 토-6시(중고생반). 5. 진교리 안내: 일반-화, 오후7시30분, 중고생-토, 오후4시. 청소담당: 삼천주공 동·서편 2단지.  
 □ 지남주 봉헌금: 847,590원 □ 교무금: 2,273,000원  
 □ 2차헌금: 254,000원

##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

1. 나눔의 주일입니다. 2. 꾸리아: 공식미사 후.  
 3. 들담회: 오후6:00. 4. 바자회에 수고하신 신자분에게 전으로 감사드립니다.  
 5. 여성분과회: 5(금) 어머니 미사후. 6. 안심공소미사: 5(오후8:00).  
 7. 10월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5(금) 오후10:00~05:00 / 교구 미카엘라 자매님의 치유기도 있으니 많은 참석바람. 차주 모임: 사목회, 반석회, 요셉회.  
 금주 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 채원병 ② 김순덕  
 기도-김광년, 백영자  
 차주 전례: 해설-박명래